



한국과 사우디의 전자제품 교역 동향

- 본회 이사 윤 동 훈

한국이 사우디로 수출되는 전자제품의 수출금액은 사우디에서 수입되는 전자제품의 금액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수출금액은 2억불을 넘어서는데, 수입금액은 십만불대에 불과할 따름이다.

전자산업의 수출은 지난 5년간 2억불에서 3억불 사이이며, 수입은 십만불에서 백만불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전자산업에서는 수출 금액이 곧 무역흑자라 할 수 있다.

□ 사우디로의 전자제품 수출은 2억불 상회

〈사우디로 전자제품 수출 추이〉

(단위:천불,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자산업	264,676	38.2	274,034	3.5	258,472	-5.7	233,038	-9.8	239,866	2.9
산업용	38,284	67.2	41,368	8.1	47,634	15.2	56,846	19.3	60,229	6.0
가정용	205,197	33.9	213,758	4.2	191,068	-10.6	147,088	-23.0	162,071	10.2
전자부품	21,194	38.9	18,908	-10.8	19,769	4.6	29,104	47.2	17,565	-39.7

자료:KOTIS에서 작성

사우디로의 전자제품 수출은 2002년에는 전년보다 큰 폭 신장하였으나, 국제고유가가 시작된 2003년부터 오히려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기간 동안 대체로 2억5천만불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제품의 수출은 2002년 2억6천만불로 전년보다 38.2% 증가하였고, 2003년 2억7천만불로 3.5%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2억5천만불로 5.7%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2005년에도 2억3천만불로 9.8% 계속 감소되었다. 2006년에와서야 2억3백만불로 전년보다 2.9% 회복된 것이다.

이 중, 가전의 수출이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나 가장 규모가 크다. 전자 수출에 있어 가전의 비중이 2002년 77.6%에서 2006년 67.7%로 변했다. 가전수출은 2002년 2억5백만불로 전년보다 33.9% 급증하다가 2003년 2억1천만불로 4.2% 증가에 그쳤다. 2004년에는 1억9천만불로 10.6% 감소하였고 2005년에는 1억47백만불로 23%나 크게 감소하였다. 2006년에 와서야 전년대비 10.2% 증가한 1억6천만불로 회복되었다.

정보통신 산업용의 수출은 2002년 3천8백만불로 전년보다

67.2% 급증하였으나 2003년 4천1백만불로 8.1% 증가로 둔화되었다. 2004년에는 4천7백만불로 15.2%, 2005년 5천6백만불로 19.3%, 2006년 6천만불로 6.0%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전자부품은 사이즈가 세 부문 중에서 최소이다. 2002년 2천1백만불을 수출하였고, 2003년 1천8백만불로 전년보다 10.8% 감소하였다. 2004년 1천9백만불로 4.6%, 2005년 2천9백만불로 47.2%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 1천7백만불로 무려 39.7% 감소하였다.

□ 사우디에서 전자제품 수입은 십만불대

〈사우디에서 전자제품 수입 추이〉

(단위:천불,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자산업	82	-50.6	285	247.6	661	131.9	742	12.3	109	-85.3
산업용	12	71.4	92	663.7	174	89.1	543	212.1	67	-87.7
가정용	6	-25.0	79	1216.7	486	515.2	194	-60.1	38	-80.4
전자부품	63	-58.3	114	81.0	0	-100.0	4	4.0	3	-25.0

자료:KOTIS에서 작성

사우디에서 수입하는 전자제품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사우디로부터의 전자제품의 수입은 2002년 8만2천불로 전년보다 50.6%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2십8만불로 247.6%나 급증하였고, 2004년에도 6십6만불로 131.9%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5년 7십4만불로 12.3% 증가하였지만, 2006년 1십만불로 전년보다 85.3% 격감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기록이 매우 심한 편이다. 먼저, 산업용에 있어 2002년 1만2천불에서 2005년 5십4만불까지 증가하다가 2006년 6만7천불로 줄어들었다. 가전은 2002년 6천불에서 2003년 4십8만불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3만8천불로 다시 줄어들었다. 전자부품도 2002년 6만3천불에서 2003년 1십1만불로 증가하다가 2006년 3천불로 뚝 떨어졌다.

□ 10대 전자제품 수출에는 에어컨, 대형냉장고가 상위

사우디로 수출되는 전자제품 10위를 보면, 2006년 기준, 에어컨, 대형냉장고, 위성방송수신기가 각각 금, 은, 동메달을

걸고 있다. 그 다음이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PDP-TV 등이 상위 5위에 랭크되어 있다.

1위인 에어컨은 2002년과 2003년에 1억불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면서 2005년에는 4천만불까지 내려갔다. 2006년에는 7천만불로 회복되었다. 2위인 4백리터 이상인 냉장고는 2002년 1천3백만불에서 2004년에 2천만불 수준으로 올라섰고 2006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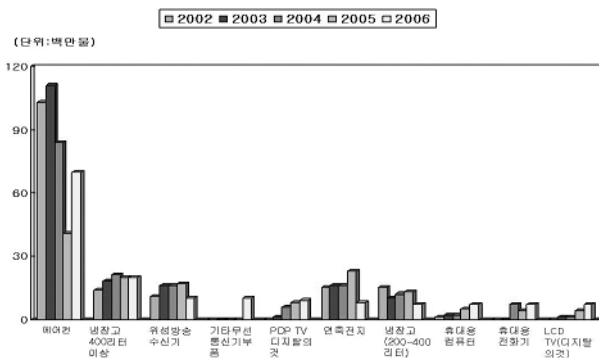
3위인 위성방송수신기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천만불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6년 985만불로 줄어들었다. 4위인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은 2002년 4십8만불에서 2005년 1십7만불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980만불로 도약하였다. 5위인 PDP-TV는 2003년 133만불에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6년 945만불에 달하였다. 국산 디지털TV가 사우디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6위에서 10위까지를 보면, 연속전지가 797만불, 2백에서 4백리터인 냉장고가 727만불, 휴대용컴퓨터가 717만불, 휴대폰이 675만불, LCD-TV가 658만불을 각각 기록하였다.

전자제품 수출에 있어 지난 5년 사이 몇 가지 변동이 있었다. 크게 신장한 제품군은 부품이나 디지털 신제품을 들 수 있으며, 전통 가전군들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은 5년 사이 20배 정도 급증하였다. 디지털 TV의 수출도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LCD-TV의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 휴대용컴퓨터도 늘고 있으며, 휴대폰은 30배 이상 도약한 것이다. 국산 휴대폰의 브랜드 인지도가 선진국은 물론 중동 사우디에서도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우디로의 10대 전자제품 수출(2006년 기준)〉



□ 전자제품 수입 규모는 미미

〈사우디에서 5대 전자제품 수입(2006년 기준)〉

(단위:천불, %)

제품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타의로 용전자기기	-	-	-	-	1	1.0	32	3100.0	22	-31.3
카스테레오	-	-	-	-	-	-	-	-	16	160
개인용 컴퓨터	-	-	3	3.0	4	33.3	-	-100.0	12	120
칼라TV (25인치이상)	-	-	-	-	-	-	-	-	10	10.0
LCDTV (디지털의장)	-	-	-	-	6	6.0	-	-100.0	8	8.0

자료 :KOTIS에서 작성

사우디는 전자산업이 아직까지 발전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수입되는 전자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규모가 큰 편이 못 된다.

5대 상위 수입 전자제품을 살펴보면, 기타의로용전자기기가 2만2천불로 1위이고, 카스테레오가 1만6천불로 2위, 개인용컴퓨터가 1만2천불로 3위, 25인치 이상되는 칼라TV가 1만불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LCD-TV가 8천불로 5위를 기록한 것이다.

E. 사우디 전자산업의 위상

□ 세계전자 생산에서 45위, 시장에서 41위

사우디의 전자시장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며, 세계전자 생산에서 0.1%를 차지하면서 45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요에서는 세계의 0.2%, 41위를 차지하고 있다.

EDP(Electronic Data Processing)는 생산에서 44위, 시장에서 43위를 점하고 있다. 사무용기기는 46위와 45위, 제어계측기기는 공히 33위, 의료산업용기기는 36위와 25위, 텔레컴은 45위와 31위, 가전은 49위와 29위, 전자부품은 47위와 44위이다.

□ 전자산업은 꾸준히 성장



기고

사우디의 전자산업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수입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1991년 3억8천만불이던 사우디 전자산업은 2004년 7억4천만불로 연간 5% 성장하였다. 시장 수요에서 열에 아홉은 외산 수입품으로 충당되고 있다.

전자산업의 성장률은 2002년 2.9%, 2003년 3.9%에서 2004년 6%에 달하는등 국제석유시장의 호황을 통해 사우디 국내 전자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기기의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2004년 전자수입은 28억불로 전년보다 11%나 급증한 것이다. 사우디 정부는 1998년부터 우정부에 속한 텔레콤분야를 민영화하기 시작하여 정부가 대주주인 사우디텔레콤회사가 인수하였다. 2001년에는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외국투자에 개방되었고, 동시에 사우디통신정보기술위원회의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WTO와의 협정에 의해 사우디정부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개방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과 민간회사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새로운 모바일라이센스를 승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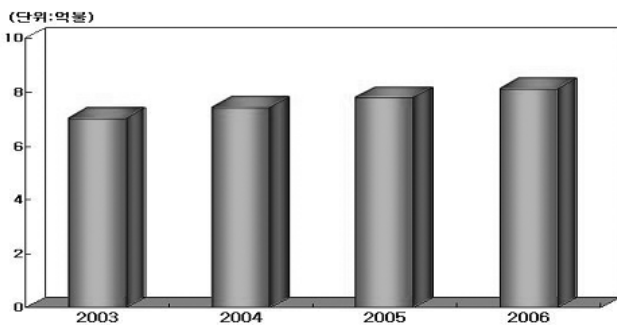
F. 사우디 전자기기의 생산은 5% 내외로 증가세

□ 전자산업은 8억불 생산 기록

사우디의 전자기기류의 생산 규모는 석유수출이나 전자수요에 비해 매우 미흡한 편이지만, 오일머니를 활용한 전자산업 고도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석유일변도에서 디지털시대에 적절한 전자산업에도투자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전자산업의 생산은 2003년 7억2백만불에서 2004년 7억44백만불로 전년보다 5.9%, 2005년 7억8천만불로 4.8%, 2006년에는 8억1천만불로 4.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 전자산업 생산 추이>



□ 가전의 생산은 1천1백만불

가전 생산은 2003년 1천3백만불에서 2004년 1천1백만불로 줄어든 상태에서 2005년과 2006년에도 그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가전산업은 초기 단계로 최신 설비나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오디오에 편중되어 있으며, 라디오 및 녹음기의 생산이 2003년 1천1백만불에서 2004년, 2005년, 2006년에 1천만불로 감소되었다. 여타 오디오장비들은 2003년 3백만불에서 이후 1백만불로 또한 감소하였다.

□ 전자부품은 6천만불 이상 생산

전자부품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자부품의 생산은 2003년 6천만불에서 2004년 6천2백만불로 전년대비 3.3%, 2005년 6천5백만불로 4.8% 각각 증가하였다. 2006년 6천7백만불로 3.1%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능동부품의 경우, 2003년과 2004년 공히 8백만불에서 2005년 9백만불, 2006년 1천만불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수동부품은 2003년 3천만불에서 2004년과 2005년 3천2백만불을 기록하였고, 2006년 3천3백만불로 증가하였다.

□ 정보통신부문은 컴퓨터류가 주도

정보통신용 전자기기의 생산에 있어서는 컴퓨터류(EDP) 및 제어계측기기가 앞서고 있으며, 산업용의료기기, 텔레콤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EDP의 생산은 2003년 1억74백만불에서 2004년 1억8천만불, 2005년 1억89백만불, 2006년 1억96백만불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어계측기의 생산도 같은 기간 1억6천만불, 1억67백만불, 1억74백만불, 1억81백만불을 각각 기록하였다. 산업용의료기기의 경우 1억23백만불, 1억26백만불, 1억3천만불, 1억34백만불을 각각 생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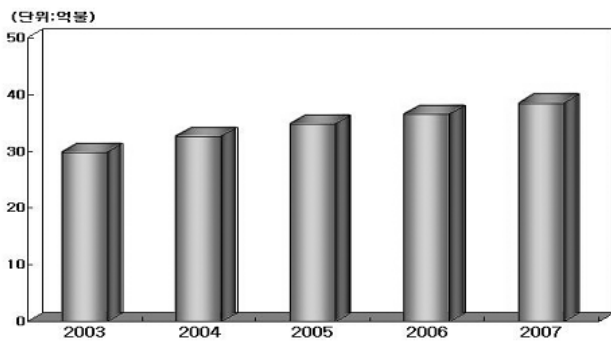
G. 사우디 전자기기의 수요는 38억불

□ 오일머니로 수요 활발

국제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의 유입, 높은 경제성장, 소득수준의 향상, 정부의 개방정책 등 민간시장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사우디의 전자기기의 수요는 2003년 29억96백만불에서 2004년 32억71백만불로 전년대비 9.1%, 2005년 34억84백만불로 6.5%, 2006년 36억55백만불로 4.9% 각각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38억53백만불로 5.4%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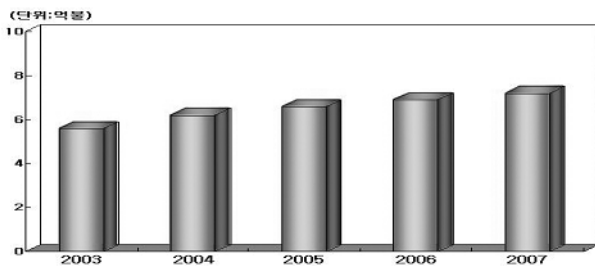
〈사우디 전자기기의 수요 추이〉



□ 가전부분의 수요는 7억불

사우디의 가전 수요는 2003년 5억61백만불에서 2004년 6억2천만불로 10.5%라는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5년 6억61백만불로 전년대비 6.6%, 2006년 6억99백만불 5.7%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7억26백만불로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 수요 추이〉



칼라TV의 수요는 2003년 1억72백만불에서 2004년 1억9천만불, 2005년 2억9백만불, 2006년에는 2억28백만불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비디오카메라의 경우 같은 기간 67백만불, 80백만불, 88백만불, 94백만불 기록하였다.

오디오부문에서 라디오녹음기는 2003년 1억불에서 2004년 1억5백만불, 2005년 1억11백만불, 2006년 1억17백만불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자시계류의 수요는 1억25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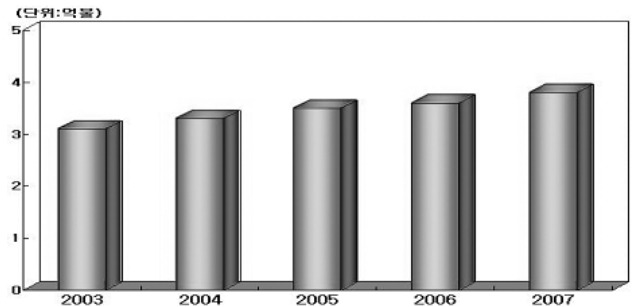
1억27백만불, 1억3천만불, 1억33백만불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자부품의 수요는 4억불 육박

사우디의 전자부품 수요는 2003년 3억13백만불에서 2004년 3억36백만불, 2005년 3억53백만불, 2006년 3억66백만불로 각각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3억8천만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수동부품의 수요는 2003년 1억1천만불에서 2004년 1억14백만불, 2005년 1억2천만불, 2006년 1억24백만불로 증가세를 지속함. 이에 비해 능동부품의 수요는 19백만불, 30백만불, 33백만불, 35백만불로 수동부품의 규모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전자부품 수요 추이〉



□ 정보통신부문의 수요는 통신레이더가 리드

정보통신용 전자기기의 수요는 통신레이더와 컴퓨터류(EDP)가 주도하고 있다. 경제규모의 확대,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정보통신용 전자기기의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다.

통신레이더의 수요는 2003년 5억94백만불에서 2004년 6억55백만불, 2005년 7억7백만불, 2006년 7억57백만불로 증가하고 있다. EDP의 수요도 5억88백만불에서 6억4천만불, 6억85백만불, 7억12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제어계측기는 2003년 3억6천만불에서 2004년 3억74백만불, 2005년 3억93백만불, 2006년 4억11백만불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산업용의료기기도 2억59백만불, 2억8천만불, 2억95백만불, 3억6백만불로 수요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